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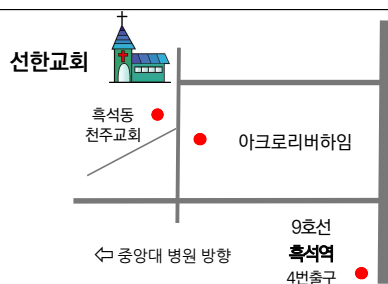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1부 주일 오전	9:30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2부 주일 오전	11:00				
오 후 예 배	주일 오후	3:30	유 아 부	오전 11:00	남전도회	오후 2:00
	(5째주 셀가족모임)		유 초 등 부	오전 11:00	바 울 회	오후 2:00
중 국 어 예 배	주일 오후	4:00	청 소 년 부	오전 10:00	마리아회	오후 2: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7:30	청 년 부	오후 1:00	드보라회	오후 2:00
금 요 기 도 회	금요일 저녁	8:30	영 어 예 배	오후 3:30	에스더회	오후 2:00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월삭새벽예배	6:00				
셀 가족 모 임	셀별로 정한 시간					

섬기는 분들

사 역 자	담임목사 임 춘 배	국 내 선 교 사	오인숙, 한 배 선, 강 성 규
	교육목사 권 인 혁	협 력 교 회	기쁨교회 (유성은 목사)
	전임전도사 김 진 만		주의뜰교회 (김대열 목사)
	교육전도사 윤 영		주안예교회 (이정필 목사)
	협력전도사 오 효 남		가슴뛰는교회 (원종선 목사)
은 퇴 장 로	고 상 돈, 김 대 희	관 리 장 로	손 석 규
	박 희 태	500/50 교회	(1호) 필리핀 Good Church
장 로	조 계 승 (집사장)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유 신 웅, 조 윤 익		
	박 영 근, 윤 호 중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간선 151, 350, 360, 462,
640, 642, 752(호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17(종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시아용(동작 01, 10, 21)

06910 서울 동작구 흑석로13마길 1 (흑석동 173-3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표 어 맛보아 알지어다 (시34:8)

Taste And See

실 천 사 항 3가지 습관 기록 교사훈련 선교사의 삶

삶 의 방 식 (빌 4:1-7)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2:11)



기 독 교 선한교회
한국침례회

담임목사 임 춘 배

오 전
예 배

1부 오전 9:30
2부 오전 11:0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기 원 인도자

찬 양 과 경 배 26장 (통일찬송가 14장)

교 독 문 교독문 30 (시편 67편)

찬 양 과 경 배 197장 (통일찬송가 178장)

기 도 박영근 장로

말 씬 봉 독 고린도전서 12장 1 ~ 11절

설 교 영적인 은사 문제
(임춘배 목사)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파 송 의 노 래 교회여 일어나라

축 도 임춘배 목사

성 도 의 교 제 다함께

수 요
예 배

오후 7:3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잠언 강해

교회소식

- 예배 중에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배 안 내

8월 22일 까지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립니다.
1. 주일예배: 주일예배는 11시에 영상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2. 주중예배: 금요기도회 영상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3. 각종행사: 각종 모임과 행사는 당분간 갖지 않음
4. 헌금안내:
당분간 계속해서 헌금은 교회 계좌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 국민은행 02510104158558

2. 개인경건훈련안내

1. 가정예배드리기 2. 매일큐티하고 기도하기
3. 성경일독하기(3차):
이번주 범위 (요엘 1장 ~ 말라기 4장)
4. 경건서적읽기
5. 부서별 비대면 성경공부

3. 코 로 나 1 9
기 도 제 목

1. 열방이 우상숭배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합니다.
2. 코로나 19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고 하루 속히 종식되어 일상의 삶이 회복되도록 기도합니다.
3.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야가 회복되고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되도록 기도 합니다.
4. 한국교회의 예배와 사역들이 위축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 도록 기도합니다.
5. 선한교회가 돕고 있는 교회들과 선교지, 그리고 작고 연약한 교회들을 지켜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6. 선한교회와 가정들이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성도들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기도합 시다.

4. 장 년 부 하 계
수 련 회

장년부 수련회가 8월 27일 (금) ~ 29일 진행됩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기도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제 : 주를 만날 기회를 얻으라(시 32:6)

교육부서 비대면 수련회 일정

유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일정 : 8.1 주일부터 4주간 주제 :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	일정 : 8.1 ~ 9.6 (주일) 주제 : 구약 파노라마	일정 : 8월 21~22일 주제 : Fulfillment and Process 강사 : 오인숙 선교사

한주간의
기도제목

개인 경건 훈련에 지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의 예배가 회복 되도록

가정예배

집과 땅을 탐하는 이어

찬송 : ‘맘 가난한 사람’ 427장(통 516)
본문 : 이사야 5장 8~9절
말씀 : 집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몇몇 투기꾼들만 탓할 것이 아닙니다. 대다수의 국민이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신앙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 주는지 궁금합니다. 이사야 예언자의 가르침이 대표적입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8절) 가옥과 전토는 집과 땅이지요. 이사야는 일곱 가지 화를 선포하는데 그 첫 번째 화가 바로 집과 땅을 사들여서 투기하는 일입니다. “화 있을진저”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죄를 들춰내고 심판하실 때 쓰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판할 때도 “화 있을진저”라고 했습니다.
이사야는 집과 땅으로 투기하는 일은 최악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죄에도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는데, 부동산 투기는 큰 죄에 해당합니다. 화를 내거나 시기를 하거나 교만한 죄는 기껏 한두 사람에게만 상처를 주기 때문에 비교적 작은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기 행위는 평생에 내 집을 장만하고 싶은 서민들의 소박한 꿈을 꺾고, 근근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살림을 더욱 쪼그라들게 하고,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에게 깊은 좌절과 절망을 안겨주기 때문에 큰 죄이고 흉악한 범죄입니다. 교회가 작은 죄는 이 잡듯이 찾아내 매섭게 꾸짖으면서 정작 더 큰 죄는 눈감아 주는 것은 모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일입니다.
부동산 투기가 이렇게 무서운 죄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만약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산 아파트값이 갑자기 올라가서 수억원대의 돈을 벌었다면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일까요. 그 돈으로 하나님께 특별헌금이라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가까이 있는 군산대학교 터가 예전에는 발이 푹푹 빠지는 진흙탕이어서 거의 버려진 땅이나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은 거기에 있던 땅을 헐값에 팔아 버리고 다른 땅을 사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제게 그 땅을 안 팔고 그냥 놔두었으면 지금은 돈방석에 앉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은 별로 욕심도 없는 분인데도 그런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짐짓 놀랐습니다. 권사님뿐만 아니라 대다수 기독교인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투기에 대해서 별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망에 휩싸여 있습니다.
집과 땅을 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화를 선포한 이사야의 가르침에 오늘 우리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투기가 최악이라는 설교가 교회에서 우렁차게 선포돼야 합니다.

은혜의 말씀

제 목	영적인 은사 문제 (고전12:1-11)
서 론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은사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본 론	1. 성령께서 하시는 일 (1) 예수님을 ‘주’(主)로 믿고 고백하게 함(3절) (2)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유익하도록 은사를 주심(7절) (3) 은사의 종류: 지혜, 지식, 믿음, 병고침, 능력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방언말함, 통역함(8-10절) (4)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심(11절) (5)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7절): 다양성과 통일성(4-6절) 2. 교훈 (1)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은 무엇인가? (2)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무엇인가? (3)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결 론	성령께서 나눠주신 은사를 교회와 복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섬김이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예 배 기 도	박영근 장로	조윤익 장로

매일 Q.T.		연약한 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날짜 : 8월 9일
찬양	찬송가 356장 주 예수 이름 높여		
본문	사사기 3:12-31		
말씀요약	이스라엘이 또 악을 행하자 하나님이 모압 왕 에글론을 일으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부르짖자 하나님은 원손잡이 에훗을 사사로 세우십니다. 에훗은 에글론왕에게 공물을 바치러 가서 그를 칼로 찌릅니다. 에훗 후에는 사사 삼갈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입니다.		
묵상질문 1	웃니엘 이후 다시 배교하는 이스라엘을 징계한 도구는 무엇인가요?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 하나님이 또다시 내게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인가요?		
묵상질문 2	에훗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말로 용기를 북돋았나요?(28절) 주님이 나의 약점까지도 선하게 사용하심을 믿고 용기를 낼 일은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사사기 3장 15절 베냐민은 '오른손(야민)의 아들(벤)'이란 뜻입니다. 베냐민 지파 출신 원손잡이 에훗이 사사가 됩니다.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원손잡이가 되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장래를 극복한 인물입니다. 또 베냐민 지파 사람답게 오른손을 잘 사용했음은 물론, 기량을 갈고닦아 원손도 자유자재로 사용해 무기를 잡을 수 있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장애를 극복했던 기량을 닦았던 에훗은 남들이 가지 않는 길로 갔던 진취적 인물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연약함에 간혀 낙심하지 않고, 그 연약함을 선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소서. 제게 허락하신 은사와 상황이 하나님의 도구로 온전히 쓰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깨닫고,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은혜에 기대어 살게 하소서.		

개인성경공부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기”
찬양과 기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새 370, G) 세상 모든 민족이	
묵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드와이트 무디(Dwight L. Moody)는 미국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이자 설교자요, 빈민 선교의 아버지입니다. 어느 날 그는 설교 중에 컵을 들어 보이며 “어떻게 하면 이 컵에서 공기를 조금도 남기지 않고 뺄 수 있을까요?”라고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한 성도가 공기 펌프를 이용해 공기를 빼면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무디는 “공기 펌프를 이용하면 컵이 깨질 겁니다.” 하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양한 대답이 나왔지만 아무도 정답을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잠시 후 무디는 컵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이 컵에는 공기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며, 죄의 연관성에 관해 설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컵 안의 공기를 빼듯 의지적으로 죄를 제거하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 비로소 죄가 제거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반복적인 죄를 끊는 것 역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의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나의 삶에서 끊어 버리고 싶은 죄는 무엇인가요?	
말씀 나누기	사사기 4:1~10	
묵상포인트	평안하고 안정된 삶은 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면 복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면 그 삶은 저주가 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돌이키기 위해 징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이 반복적으로 경험했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 부르심에 합당한 삶만이 지속적인 평안과 안정을 누리게 합니다. 이를 기억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묵상	사사 에훗이 죽은 뒤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나요?(1~5절)	
적용하기	사사 시대와 오늘날 우리 시대의 유사점은 무엇인가요? 불신앙과 죄악이 만연한 시대에 필요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함께 기도하기	끊임없이 제 믿음을 뒤흔드는 상황 가운데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봄으로 넉넉히 견디고 이기게 하소서.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하지 않고 기쁨으로 응답하게 하소서.	
기도		

매일 Q.T.		하나님이 싸우신 전쟁, 능동적인 믿음의 행동	날짜 : 8월 13일
찬양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본문	사사기 5:19-31		
말씀요약	별들이 시스라와 싸우고 기손강이 그 무리를 표류시켰습니다. 하나님을 돕지 않는 메로스 주민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시스라를 죽인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더 복을 받을 것입니다. 원수는 망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 있게 돋는 것 같게 해 달라고 드보라와 바락이 간구합니다.		
묵상질문 1	므깃도 전투에서의 승리 5:19-22 하나님이 싸우시는 방식이 4장 15절(서사)과 5장 20-21절(시)에서 어떻게 표현되었나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 주신 일은 무엇인가요?		
묵상질문 2	믿음의 여인 야엘의 업적 5:23-31 적장을 죽인 야엘의 행동을 영웅적으로 묘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31절 참조) 내가 능동적으로 참여할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사사기 5장 28절 우리는 흔히 대적이거나 원수를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이나, 악마적인 존재로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그들도 결국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시스라의 어머니도 자기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는 여느 어머니와 같이 늦게 돌아오는 아들을 걱정합니다.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심으신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모두가 구원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자신의 패배를 모른 채 헛된 소망을 품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봅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편에 서서 그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힘 있게 솟아오르는 해 같은 삶을 사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매일 Q.T.		조건을 거는 순종은 영광을 얻지 못합니다	날짜 : 8월 10일
찬양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본문	사사기 4:1-10		
말씀요약	이스라엘이 또 악을 행하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에게 이스라엘을 파십니다. 여선지자요 사사인 드보라가 바락에게 야빈왕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그에게 넘겨주신다는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바락은 드보라에게 동행을 요청하고, 드보라는 이번 길에서는 그가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고 말합니다.		
묵상질문 1	랍비돗의 아내, 사사 드보라 4:1-5 드보라와 훌다(왕하 22:14)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내 생각과 기준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들이는 일은 무엇인가요?		
묵상질문 2	드보라의 신탁과 바락의 조건적 순종 4:6-10 바락이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한 결과는 어떠한가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사사기 4장 3절 죄가 깊을수록 하나님 징계의 강도가 높아지고 기간이 길어집니다. 이스라엘은 하솔 왕 야빈에게 20년 동안이나 학대당했습니다. 또한 시스라가 이끄는 900대의 병거는 이스라엘의 숨통을 조이는 울무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버팁니다.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 앞에서 건디는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이는 회개하고 돌이킬 마음마저 사라진, 심각한 죄의 상태를 드러낼 뿐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보잘것없는 인생을 차별 없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셨으니 저 자신과 지체들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제한하지 않게 하소서. 능력과 환경에 위축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영광 돌리는 기쁨을 만끽하게 하소서.		

매일 Q.T.		기손강에서 펼쳐진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	날짜 : 8월 11일
찬양	찬송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본문	사사기 4:11-24		
말씀요약	시스라는 철 병거 900대와 그의 백성을 기손강으로 모읍니다. 드보라는 바락에게 하나님이 시스라를 그의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시스라의 병거와 군대를 혼란에 빠지게 하시고 바락은 이들을 추격해 몰살합니다. 도망하던 시스라는 야엘의 장막에서 야엘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묵상질문 1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4:11-16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장면이 어떻게 묘사되었나요?(15절) 최근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은 무엇인가요?		
묵상질문 2	헤벨의 아내 야엘의 업적 4:17-24 야엘이 직장을 물리치기 위해 사용한 도구들은 무엇인가요?(19,21절) 일상에서 내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들은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사사기 4장 15절 성경에는 곳곳에 해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인해 전장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뀝니다. 이스라엘을 덮었던 혼란은 이제 시스라와 그 군대의 몫이 됩니다. 무적의 철 병거가 짐이 되니 시스라는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칩니다. 이는 이스라엘은 예상하지 못한 기막힌 반전이였습니다. 이스라엘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용사 시스라는 이제 웃음거리로 전락합니다. 하나님은 그분 백성을 수렁에서 건져 웃게 하십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세상의 힘이 아무리 막강해 보여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주저하지 않고 따르는 신실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에서든 지혜롭고 용기 있게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제게 더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며,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고 누리게 하소서.		

매일 Q.T.		구원자 하나님을 향한 감사 찬양	날짜 : 8월 12일
찬양	찬송가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본문	사사기 5:1-18		
말씀요약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진행하시니 땅과 산들이 진동하고, 전쟁에 이스라엘 방백이 즐거이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은 용사를 치러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이 전쟁에 모든 지파가 참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스불론과 납달리는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묵상질문 1	드보라의 찬양 5:1-8 드보라가 경험한 하나님은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하나님과 어떤 면에서 유사한가요?(출 19:16-18) 내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묵상질문 2	하나님의 군대를 소집함 5:9-18 드보라와 바락의 전투에 대한 각 지파의 반응은 어떠했나요?(14-18절)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나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한절묵상	사사기 5장 16절 하나님 백성은 하나입니다. 열두 지파로 나뉘어 있지만, 이스라엘은 언제나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몇몇 지파는 드보라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스라의 전쟁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중 르우벤 지파는 '큰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이는 '깊은 고민과 면밀한 분석'을 의미하는데, 그들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저울질하다가 도움을 구하는 형제의 간곡한 요청을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하나님 백성의 하나 됨을 망각한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기막힌 구원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비참하게 걸었던 세상의 길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일들을 선포하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포기하고 즐거이 헌신하게 하소서.		